

전문음악인으로 발돋움하고 성장하기 위한 자극과 경험 -파리의 전문음악인 양성교육

김 동 준 · 음악평론가



프랑스 음악교육의 현주소는

필자는 이미 월간 『문화예술』 2003년 4월호에 프랑스의 음악교육의 형태를 영국과 독일의 경우와 함께 쓴 적이 있다. 당시의 기사는 주로 일반적인 음악교육 형태와 프랑스의 음악교육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지역 음악원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다. 이번에 필자는 프랑스의 음악인 교육과정 가운데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 클래식 기악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글을 써 나갈 것임을 미리 밝힌다. 아마추어가 아닌 직업 음악인이 되기 원하는 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과정과 그들이 밟아나가는 절차는, 이곳 프랑스에서는 ‘조기교육 현상’ 과 엘리트주의로 파악할 수 있는 ‘파리 국립고등음악원(CNSM,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 집중화 경향’으로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기교육’ 강조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모습은 얼핏 한국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 연주가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조기교육의 모습은 한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일찍 음악과 접하게 하고 조기교육을 중시하지만 한 악기에 대한 단편적인 레슨이 전부는 아니다.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단계적으로 익히게 하는 교육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악기로의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악기를 배우게 되는 단계에도 최소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의 악기를 배우는 것이 보통이다. 기본적으로 피아노, 그리고 바이올린이나 플룻과 같은 다른 선율 악기,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악기를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기에 거의 반드시 합창활동이 들어가며, 악보를 보고 노래하며 음악적인 귀를 개발하는 솔페주 수업은 거의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성장하는 단

계에서 음악교육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싶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오레르 아메나쥬 뮈지크(Horaires Amenages Musique)’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프랑스의 음악교육에서 한국과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제도로, 음악을 좀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 학교 수업은 오전에만 받고 오후에는 음악원에서 음악실기와 이론을 공부하게 된다. 음악조기교육 일환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오레르 아메나쥬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성적도 상위권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부모가 아이들의 재능과 음악에 대한 열성 여부를 보아 직업 음악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음악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교육비가 필요해서, 클래식 음악이 소수에게 한정된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지역 음악원에서 매우 저렴한 교육비용으로 음악교육 전반에 대한 요구를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

(*오레르 아메나쥬를 비롯 좀더 자세한 프랑스 지역 음악원 교육 현상에 대해서는 월간 『문화예술』 2003년 4월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모습으로 음악에 접한 아이들 가운데 직업 음악인이 되기 원하는 학생들은 지역 음악원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대부분이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을 지원하게 된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의 집중화 경향은 각각의 지역마다 우수한 교수진과 특색 있는 교육 시스템을 지니고

- 있는 독일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 프랑스인들의 엘리트주의를 말해 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그리고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은 철저한 나이 제한이 있어서 피아노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20살이 넘으면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입학제한 연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을 목적으로 일찍 프랑스에 유학 온 어린 아시아 학생들의 입학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집중화 경향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의 존재는 사실 근대 프랑스 클래식 음악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작곡가 가운데 한 명인 가브리엘 포레가 이 음악원의 원장을 지낸 일도 있으며, 과거 활발한 활동을 했고, 또한 현재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기악 음악인 대부분은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의 음악교육 시스템이 현재의 한국의 음악대학이나 현재로는 유일한 음악원 형태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교육 시스템과 비교하여 특별히 남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악기 레슨을 포함하여, 음악분



파리국립고등음악원 바로 옆에 위치한 현대음악 연주의 현장인 동시에 파리국립고등음악원 학생들이 종종 연주기회를 갖는 시테 드 라 뮈지크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석이나 음악사와 같은 수업의 강도나 비중이 높으며, 또한 이러한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대체로 토론식이라는 점과 다른 악기와외의 앙상블인 실내악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의 교수진들 자체가 연주인 혹은 작곡가로서 매우 수준 높은 음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계적인 거장 연주자들의 공개 레슨을 음악원 내에서 접하도록 하며, 준 프로에 해당하는 음악적인 경험을 음악원 재학시절부터 쌓아나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다르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 학생들은 나이가 어려도 이미 사회적으로 준 프로에 해당하는 경험과 대우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리국립고등음악원과 매우 인접해 있는 실험적인 음악과 미술의 복합단지인 '시테 드 라 뮈지크'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얻기도 한다.

최근 이 음악원의 학생 오케스트라인 파리음악원 오케스트라와 음악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쿠르트 마주어의 지휘로 시테 드 라 뮈지크에서 바흐의 요한 수난곡 전곡을 연주한 일이나, 혹은 현재 파리 오케스트라의 주요 연주 극장인 모가도 극장에서는 파리국립고등음악원 학생들 가운데 우수한 학생들에게 연주할 기회를 주고 있다든지 하는 예가 그렇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의 기악과 학생들은 20대 이전부터 국제 콩쿠르를 목적으로 하는 높은 경쟁의식과 뛰어난 전문 음악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교수진들의 책임의식 같은 것이 이 음악원에 흐르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전문 음악인으로 발돋움하고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자극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음악원 출신의 학생들이 모두 직업음악가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지만,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빠르면 2년, 혹은 4년이면 학업을 마치고 직업음악인의 길을 걷게 된다.

프랑스의 교육과정과는 다소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지

- 만, 프랑스의 클래식 음악 관련 미디어들은 이 음악원 출신 가운데 뛰어난 학생들이 연주활동을 시작하면 이미 기성 음악인과 마찬가지로 기사를 다루어 활동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어린 연주자들을 일찍부터 스타화하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비판과 나아갈 길은

사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을 향한 비판도 외부 혹은 내부에서 종종 들려온다.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이브리 지틀리스는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음악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공장같이 생긴 건물 안에서 형틀처럼 음악인을 찍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의 입학평균 연령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 이 같이 연령 제한을 둔 데에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많으며, 경쟁률이 치열한 탓도 있지만, 이 음악원의 교수진들이 순수한 ‘백지상태’와 같은 어린 학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기교를 지닌 어린 학생들일수록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동안 다양한 프랑스 음악인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가운데는 파리국립고등음악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주활동을 하는 음악인들도 많았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젊은 학생들은 우리가 세워놓은 것들을 비판 없이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음악에 있어서 하나의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작품의 연주해석에 관한 한 아무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 질문을 던지고 상상하지 않으면 음악의 역사는 중단된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브리 지틀리스가 한 말과 더불어 이 두 음악인의 말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직업 음악인이 다른 기능인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기교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